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지도력을 이양하면서 (여호수아 23:1-16)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정복 7년 등 긴 여정을 마친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90세에 이르렀고 110세에 죽었습니다(수 24:29).

본 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 두령, 재판장, 유사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거기엔 갈렙,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절의 동지들과 새 시대의 지도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를 이양하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1. 지난 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상기시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3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3-5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군사적인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을 분할하게 하셨으며 가나안 정착을 완료하게 하실 것을 확신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큰 구원이 나오는 아무 상관없고 다른 거룩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모든 승리가 자신들의 힘에 의해 혹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 삼아 신앙의 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의무에 관하여 강조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1) 순종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같이 하라”(8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초기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준 율법칙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칙을 새 지도자들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11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복종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11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당부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6:5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 속에는 ‘선하다(good)’는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며 그의 길이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진실되게 걷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 잡혼을 금함

“그들이 너희에게 음부가 되며 밋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13절).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의 잡혼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염려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문제 삼은 것은 불신자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방신들을 섬겼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결혼할 경우 거짓신을 좇고 악을 행할 것을 염려해 잡혼을 금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했을 때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같은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

습니다.

여호수아의 경고는 이스라엘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후 6:14)고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4. 선택을 촉구함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16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들에게 선택을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 속에는 ‘선하다(good)’는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며 그의 길이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 24:15).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이같이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여호수아가 단호한 선택을 한 것처럼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국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7년도 당회조직 발표되다

새해의 당회조직이 지난 25일(수) 임시당회에서 발표되었다. 교회는 전례대로 2년 단위로 한 부서를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과 부설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이들은 각 부서별 조직을 제정하고 기획위원회가 전체를 조율하여 당회에 보고하여 통과한 후 임명케 된다.

- 당회서기: 오정수
- 예배위원회: 성준경
- 교육위원회: 이완형
- 기획위원회: 김영준
- 찬양위원회: 김광신
- 교구위원회: 임훈규

- 전도위원회: 윤찬오
- 구제위원회: 왕경래
- 재정위원회: 노송성
- 출판국: 정병무
- 교회갱신연구원: 민순구
- 상호회: 신용식
- 식당관리: 박두호
- 주부대학: 조정식
- 상담실: 김대호
- 예전부: 조정식
- 선교위원회: 이영기
- 관리위원회: 윤봉준
- 동산위원회: 김상철
- 장학위원회: 노문환
- 비전2020운동본부: 이갑진
- 차량관리부: 최학인
- 살롬경로대학: 전기섭
- 성경대학: 박정선
- 멀티미디어: 오정수

안식장로 · 부교역자 · 직원 전원 사무인준 투표통과

지난 25일(수) 임시당회에서 2006년도 안식년을 가진 민순구, 윤찬오, 이완형, 임훈규 장로의 사무인준 투표를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3조2항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원 동역자로 한 후 부교역자, 협동목사, 교육목사, 전도사와 사무국 직원 전원에게 대한 인준투표를 하고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었다.

우리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는 2000년도 월간조선이 선정한 한국교회 100년사에 10대 사건 중 하나로 뽑히나 있다.

한편 2007년도 안식년을 갖게 되는 홍성주, 이복규, 이관규, 김세재, 임상현 장로는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시무하고 이번에 사무인준을 받은 장로는 11월 15일(수) 당회부터 시무케 된다.

2007년도 교회봉사 지원

11월5일 주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

2007년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의 지원을 돕기 위해 교회봉사지원서가 지난 주 배부되었다.

우리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육부서, 찬양대 그리고 기타 부서들이 운영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3대 목표를 이루어

가고 있다. 내년에도 모든 부서에서 성도들의 봉사가 요청되고 있다. 본인이 받은 달란트대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여 받은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2007년도 교회봉사지원서는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다. 접수는 11월5일 주일까지 받는다.

교사 교육 및 연합 기도회

11월3일(금) 오후 7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세재 장로)는 11월3일(금) 오후 7시30분 우리교회 교회학교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강사는 김기숙 박사(서울여대 교수)로 교수학습개

발에 대한 강의를 한다.

현직 교사는 물론 내년도 교사지망 하시는 성도도 참여할 수 있다.

성경암송대회 은혜 중에 마쳐

해마다 교회설립 50일 전부터 시작되는 사명자 대회 기간 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따라 사명자로 살기 위해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올해에도 많은 성도들이 출전, 각부 예선을 거쳐 지난 27일(금) 본선에 출전한 이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수상자가 각부별로 확정되었다.

이들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식을 통해 상이 주어진다.

- <대상>
- 교육1국: 박연경(초등부)
- 영어부: 김윤진(초등부)
- <금상>
- 교육1국: 박연준(유년부)
- 영어부: 김윤진(초등부)
- <은상>
- 교육1국: 이선민(유년부)
- 영어부: 김윤진(초등부)
- <동상>
- 교육1국: 이정현(유년부)
- 영어부: 이영숙(장년부)
- 교육2-5국: 김소연(중등부)
- 교육2-5국: 김진달(장년부)
- 교육2-5국: 김필구(대학부)
- 교육2-5국: 최용결(장년부)

2006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종강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

<역대기반>

강석조 구진영 김금준 김상태 김숙자 김연화 김영주 김옥순 김용혁 김은태 김장섭 김진희 김혜중 송은자 오선숙 윤숙희 이상호 이태주 이해순 이현주 이해경 이해정 정병무 정유정 조미진 조상희 진영숙 최금숙 최춘숙 한상준 한선현 (31명)

<소선지서반>

강석조 고금란 곽선자 김미성 김세재 김옥순 김용혁 박경희 박찬미 방은주 백영희 손기익 송은자 유경희 유명석 은기장 이계홍 이상은 이상호 이윤미 이조은 이화용 임승한 장상국 전수자 정병무 정유정 조미진 조상희 조응식 조정옥 최규초 최정인 현승희 (34명)

<누가복음반>

강은경 고선옥 고영숙 곽미숙 김미선 김선영 김세림 김연화 김혜영 김희정 심선희 안선광 안인호 양호경 오혜경 위성남 유남식 이난화 이상호 이소명 이지영 이해경 정병수 정복순 정유연 최명순 최요섭 하영수 (28명)

<요한계시록반>

곽 숙 김계숙 김복승 김상윤 김신애 김옥순 김유경 김진희 김혜수 박길희 박분옥 박영숙 박화실 서경애 서한석 신정순 신혜일 우경애 이상호 이영미 이영자 이은희 이재순 이준영 이현주 임인선 장미자 정경희 정희순 주화인 최금숙 최예순 최종희 최태경 한금주 한정원 함은희 (37명)

<교사양성반>

김성주 김영미 김혜정 노정숙 민마리아 배옥선 백승정 손기익 옥희숙 유영희 이유성 이해경 임대훈 전광환 전수자 정종환 주성숙 최성희 최원석 한경례 허 환 황선희 (22명)

<L.T.C-교구일꾼양성반>

권장철 김정은 박태선 박화실 유종숙 윤복순 이은미 전화진 최양자 최예순 최재식 (11명)

<세계선교대학>

김경옥 김영태 김종만 김혜중 노제현 민마리아 박정인 손혜신 신문래 양정실 원명희 원용범 은기장 이규정 이영기 이영숙 이은숙 이화명 전광해 전수자 최형렬 탁경준 홍순복 홍승자 (24명)

<살롬경로대학>

강해진 고석규 공진문 국산옥 김계순 김복녀 김신애 김인순 김정희 김종순 나옥녀문순례 민정이 박보선 박분학 백영희 서수경 송옥혜 송인순 송영강 신정녀 신종현 양순란 엄정순 유복자 유철엽 유환희 윤만현 이기순 이용남 인천희 임달자 전임순 정귀임 정연수 조길금 조명녀 주백묘 진임순 최금자 최무순 한영숙 한영희 한지중 홍광숙 홍복산 (46명)

<주부대학>

권영월 김경자 김경진 김수원 김순영 김영미 김인영 김정제 김정현 김정희 김창희 김현자 김희정 박순복 서양지 소선자 송인숙 신기숙 신혜일 우성자 이경숙 이동원 이재선 이재순 이정민 이태정 이해순 임미경 임승자 정정숙 조윤희 조정옥 한명순 홍순복 (34명)

특별기고

교회개혁 489주년에 즈음하여

- '종교개혁'이 아닌 '교회 개혁'이다 -



김인수 교수(장신대, 역사신학)

【들어가는 말】

교회력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종교개혁’이 아니고 ‘교회개혁’이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한 것이다. 우리말에 종교라는 말은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말이다. 즉 불교, 힌두교, 마호메트교 등 세계 종교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종교개혁기념주일은 마땅히 교회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해야 한다. 교회개혁 기념 489주년을 맞이하면서 루터가 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된 시대적·교회적 상황과, 개혁의 동기, 그리고 원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교회개혁의 배경】

교회에 억눌려 움츠리고 있던 인문,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죄악은 성직매매와 성직독신주의의 와해

16세기 초, 정확하게 말해서 1517년에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성서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을 때의 시대적 상황은 이렇다.

먼저, 일반 사회 상황은 중세 1천년의 로마 카톨릭 교회 전횡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고 있었다. 교회에 억눌려 움츠리고 있던 인문,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교회가 지지하던 천동설 곧,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주장에 반기를 들고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명령에 맹신하던 시대가 지났음을 알렸다. 옛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으로 돌아가자는 인문주의(Renaissance)가 발흥하면서 인지(人知)가 폭 넓게 발전되었다. 나침반의 발명과 대형 선박의 제조 기술은 바다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는 미신을 버리고 지구 끝까지 항해하여 새로운 항로를 찾아냈고 신대륙을 발견한다. 중세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민족

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인쇄술의 발전은 지식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보급하였다.

반면, 교회는 여전히 악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었다.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의 죄악은 성직매매와 성직독신주의의 와해였다. 즉 수입이 많은 수도원장 자리나 교구장의 자리를 돈으로 매수하는 성직매매가 성행하였다. 또한 신부들은 결혼할 수 없는 엄연한 교회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정부(情婦)를 두고 사생아를 낳아 기르면서, 그 사생아의 손을 잡고 저자거리를 배회할 정도로 무디어진 양심을 갖고 살고 있었다. 이런 타락한 교회 현실을 보면서 루터는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환골탈퇴(換骨脫胎)의 혁신을 외치게 되었다.

【교회 개혁의 동기】

교회의 타락은 면죄부 95개 조항의 면죄부 무용론 바로 이것이 교회개혁의 불씨

루터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교회의 타락은 면죄부(免罪符) 문제였다. 카톨릭 신자가 신부에게 고백성사를 하면 신부는 그 신자가 고백한 죄의 경중에 따라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한다. 예를 들면 기도문을 외우는 것, 자원봉사 등의 선행을 하라고 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루터 당시에 로마 교회는 바티칸에 내부 면적만 4만평이 넘는 거대한 베드로대성당을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도문이나 선행을 하는 대신 면죄부 즉 죄를 면해 주는 티켓을 사면 죄가 용서 된다면서 이것을 팔았던 것이다. 또 면죄부를 판 돈으로 고위 성직자들이 정부를 데리고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열락을 즐기는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성서학 교수였던 루터는 우선 면죄부가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엉터리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또한 신자가 범한 죄에 대한 용서는 신자들의 통절한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결코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확신을 갖고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재직하던 비텐베르크대학 성당 동편문에 95개 조항의 면죄부 무용론에 대한 항의문을 게시하였다. 바로 이것이 교회 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다.

【교회개혁의 원리】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로만’

루터의 95개조 항의문은 때마침 발명된 인쇄술에 의해 재빨리 구락과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뜨거운 반

향을 불러 일으켰다. 놀란 교황청은 루터에게 이것을 즉시 폐기하라고 명했지만, 루터는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폐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하였고, 루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새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개신교회(Protestant Church)가 된 것이다.

루터는 교회개혁의 원리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이다. 성경만이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교황도, 전통도,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상대적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오직 믿음만으로’(sola fide)이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부에게 고백성사를 하고 선행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만이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셋째는, ‘오직 은혜로만’(sola gratia)이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에 보탬이 될 수 없고,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리이다.

이 루터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확립한 이가 장로교회를 시작한 요한 칼빈 선생이다. 그는 『기독교강요』라는 책에서 개신교회의 신학적 원리를 상세히 밝혀 새로운 신학의 발판을 구축하였다.

【나오는 말】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혁신 계속해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금년은 루터가 교회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때로부터 489년이 되는 해이다. 약 50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부패의 고리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인지라, 끝없이 범죄하고 오류에 빠지는 인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끝없이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혁신을 계속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라는 명제는 500년 전 루터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교회개혁의 정신에 입각하여 철저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시금 중세 카톨릭교회가 저지른 죄악과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하겠다.

천국시민양성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개 숙인 우리들...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구하여야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난 9월21일과 22일 이틀에 걸친 열린 바자를 통하여 우리 호산나 학교는 너무도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육함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모아진 은 교우님들의 정성어린 헌물들과 각지의 농어촌 교회에서 지원하여 주신 각종 농수산품들로 준비되어진 맛나고 싱싱한 먹거리들...

그 안에 넘쳐나는 풍성한 이웃사랑에 저희들은 감동하였습니다. 세상의 각박함 가운데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영혼이 그 사랑과 섬김 속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호산나 학교 부모님들도 이를 동안 총동원되어 그 넘치는 사랑의 자리에 한 식구가 되어 그동안 목말랐던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렸습니다. 늘 부족했

던 우리들의 마음이 풍요로워 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호산나 학교 학생들의 야외학습 장면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 호산나 부모회에서는 지난주(10월15일)에 국밥과 김치, 절편을 준비하여 약소하나마 은 교우님들께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집 건립에 헌신과 봉사의 손길이 되어주신 은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막 맺혀지기 시작한 감사의 열매인 우리 호산나 학교가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익어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직접 담당해 주신다는 믿음 굳게 잡고 예수 안에서 지어진 영원한 헐리지 않는 사랑의 집, 예수로 지어진 행복의 집을 이 땅에 그리고 저 천국에 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지극히 작은 자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을 찬양하며...

이 시대의 구원선. 서울교회의 은 교우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학교 부모회 올림

2007년 섬김위원 요람에 교우 사업체 게재

섬김위원 요람에 사업체 게재를 원하는 성도들은 11월30일까지 접수 양식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703호 멀티미디어부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0일(월)부터 11월11일(트)까지 Pilgrims' Vision Tour(성지순례단)을 인도한다.
- 개업. 배정자집사(2교구) 엘리에셀 결혼정보 역삼동 642-1 역삼벤처텔 1703호, T. 2192-3640, 010-5552-0268
- 이전:가나기독교 백화점 (11교구) 이상철 집사, 김미향 집사 송파구 석촌동 296-13 (일신여상 건너편 버스정류장) T. 412-4195
- 이사: 김희진 권사(6교구) 양천구 목2동 e편한세상 101-201 T. 2646-1629
김관홍 집사, 황인숙 권사(12교구) 용인시 기흥구 원남동 효성빌라 T. 031-275-2384

- 성지순례 기간 중 업무 대행
이규정 목사 - 서명철 목사, 정수길 목사 - 한상은 목사
지혜영 전도사 - 이태훈 목사, 박근실 전도사 - 장석남 목사
- 신문재(이은숙)목사의 현지 사정으로 러시아 선교사 파송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당회가 이를 받았다.
- 서문석 장로는 개인사정으로 사무국장직을 12월 말로 사임하고 사무장로로 복직케 된다.
- 주간 식당 봉사: 한나전도회(10월29일), 당회원 (11월5일)
- 금주의 식사: 이건모 집사 강영자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성지순례단 비전을 찾아 내일(30일)출발

우리교회 필그림 비전투어팀(성지순례단) 90명이 10월30일 15시 40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1월11일(토) 13시15분 도착하기까지 터키, 이집트(애급), 이스라엘, 그리스 4개국을 방문하면서 은혜를 체험케 된다.

이종윤 목사는 Pilgrims' Vision Tour의 목표를 4가지로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1. 방문지역을 복음 대상으로 삼고 선교비전을 받는다.
2. 순례지역에 대한 역사공부와 지리공부를 통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삼는다.
3. 13일 동안 4개국을 순방하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확인하고 인간 삶의 지혜를 배운다.
4. 예수님과 사도바울 그리고 모세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사명을 받는다.

천국시민양성 - 유년부 달란트 잔치

주머니 속에 사랑도 담으렴...

10월 29일 주일 1부 예배후 한티공원에서 유년부 달란트잔치가 열립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생 대상으로 한 이번 달란트 잔치에서는 아이들이 매 주일마다 출석, 성경 암송 등으로 모아왔던 달란트를 학용품과 장난감 및 간단한 간식 등으로 교환해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의 10분의 3을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달란트는 이번 달란트 잔치 예산의 30%와 맞바꾸어져 선교헌금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각 학년별로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을 나누어 기도후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행사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이들이 열방을 향한 복음전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달란트 잔치를 통해 아이들이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6 사명자 대회 은혜롭게 진행되어 좋은 열매 풍성히 맺도록
2. Pilgrims' Vision Tour(성지순례단) 큰 비전과 사명 받도록
3. 고3생과 재수생 수능시험과 미래비전을 위하여
4. 개정된 사학법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요구 철회되도록

교회외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